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채 정 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한 성 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가 성격, 사회적 관계, 문화적 측면 중 어느 것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가를 확인하고, 이 자기고양 편파가 우울감과 생활만족감이라는 심리적 적응 지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이탈주민들과 남한 주민들이 자기고양 편파와 문화적 측면에서 얼마나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과 남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고양 편파 수준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비교하였는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121명을 대상으로 자기고양 편파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측면의 영향력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낙관성의 순서대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지각된 차별감과 사회적 바람직성은 자기고양 편파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지만, 회귀분석에서는 설명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는 우울감과 생활만족도 모두에게 부적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남자 북한이탈주민들이 보인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목을 끄는 것이다. 반면에 여자 북한이탈주민들이 보인 경향성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었다.

주요어 : 자기고양 편파, 심리적 적응, 북한이탈주민, 통일, 문화

* 이 논문은 2000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0-H02-97600).

† 교신저자 : 채정민,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E-mail : minspin@unitel.co.kr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유입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통일부, 2002) 이들의 심리적 적응 문제의 중요성도 그와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부적응 문제에 대한 진단(윤인진, 1999; 이소래, 1997; 이장호, 1996; 전우택, 민성길, 이만홍, 이은설, 1997; 정유선, 1998 등), 그 적응 수준과 기제(조영아, 2003; 채정민, 2003) 등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적응이란 언제나 개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적응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적응의 주체인 개인의 자기 지각이 적응을 좌우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정도에서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적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의 능력과 특질을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하는지, 혹은 과소평가하는지 아니면 과대평가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그들의 자기 평가 방식과 심리적 적응에 작용하는 변인들의 관계를 좀 더 명료하게 파악해서 그들에게 적절하고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 지각 경향성에 대한 연구 보고는 없다. 따라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경향성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주목된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2001)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남한에서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에서도 ‘편견과 차별’, ‘적은 임금’ 등의 문제를 매우 많이 경험한다. 그리고 김광억

(1999)은 이들이 자신을 여러 모로 ‘특별한 사람’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이들은 암묵적으로 자기들이 남한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평균적인 남한 사람 이상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경험하는 편견과 차별은 남한 사회의 현실과 그들의 과장된 자기 평가의 괴리로 인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이는 상향된 자기 평가가 남한 사회에서 반드시 역기능적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한 사회가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에도 불구하고 대학생과 일반 성인 집단 모두 자기고양 편파 경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한성열, 2003 심사 중).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상향된 자기 평가가 오히려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연구 결과(예, 김혜숙, 2000; 전우영과 조은경, 2000)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과장된 자기 평가에 대해 남한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의 과장된 자기 평가는 심리적 적응에 순기능적일 수도 있고 역기능적일 수도 있다.

1990년대를 전후해서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자기고양(self-enhancement)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고양에 대한 개념적 정의도 매우 다양한데, 이를 대체로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주관적 자기 평가가 객관적 자기 수준을 능가하는 것을 자기고양의 기준으로 설정한 Colvin, Block과 Funder(1995)의 정의로서 자기고양을 “규범적인 기준에 의해 예측한 것보다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기술하려는 경향”으로 정의했다. 둘째는, 주관적 자기 평가가

평균적 타인 수준을 능가하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로서, Markus와 Kitayama(1991)의 정의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자기 고양이란 “평균적인 타인(average others)에 대한 지각 수준보다 자신이 더 나은(better) 속성을 지닌 것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의 정의는 2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자기고양은 전적으로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반대로 완전히 맥락 특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기고양이란 명백하게 실제에 대한 긍정적 왜곡(distortion)이며 편파(bias)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느 정의가 더 유효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 적합한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후자보다 전자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더 낫다. 후자의 정의에 따르면, 평균적인 타인보다 자신의 수준이 실제로 더 높은 경우에도 자기고양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전체 비교 대상 중에서 꼴찌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신을 평균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강한 자기고양에 해당되는데도 자기고양이 아닌 것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전자의 정의에 따르면,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할 필요 없이 개인의 객관적 능력을 기준으로 자기고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benefit)이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을 남한 주민과의 비교에 근거해 파악할 경우 ‘우월한 남한 주민.열등한 북한 주민’이라는 고정관념에 따른 도식적 비교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경향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주관적으로 자신도 ‘평균적인 남한 사람’보다 못하지 않다는 의식을 갖게 되면 그들의 자기고양 강도가 과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

주민의 연구에서 전자의 정의가 적절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자기 고양 문제를 다룰 때 주된 관심사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이다. 첫째는, 남한과 북한 문화의 자기고양 편파 경향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서 자기고양 편파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적 요구와 개인의 수용 측면에서 자기고양 경향을 남한과 북한 문화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다. 만약, 자기고양 경향을 북한 문화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남한 문화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면, 북한에서 자기고양 경향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기고양 경향을 습득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자기고양 경향을 보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과정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둘째, 남한 문화에서 자기고양 편파가 지닌 의미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기고양 편파를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남한 문화와 남한 주민의 자기고양 경향의 관계와는 달리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주민으로서 남한 문화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고양 경향을 지향하고 변화시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과정이 최소한 3년이나 4~5년이 걸린다(이우영, 이금순, 서재진, 전현준, 최춘흠, 2000; 정유신, 1998)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횡단 연구 방법으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문제들은 같은 사회와 문화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문제와는 달리 문화



그림 1.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에 대한 개략적 연구 모형

간 이주 상황이라는 독특한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자기고양 편파에 대한 연구에서 제기되는 논쟁점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과정이라는 독특한 상황 조건을 고려해서 이들에게서 자기고양이 어떠한 적응적 의미를 지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개인 특성, 문화적 영향, 특정 주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변인들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여기서 자기고양 편파가 안정적인 성격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북한에서부터 가졌던 측면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문화적 영향 측면과 관련성이 높다면 남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고양 편파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회적 관계 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남한 문화라는 거대한 차원보다는 주변인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의 자기고양 편파가 영향받았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자기고양 편파가 심리적 적응 수준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검토해봄으로써 자기고양 편파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에 대한 잠재적 예인 변인

자기고양 편파와 성격

사람들의 자기고양 편파 경향에 대해 가장 자주 거론되는 설명은 Osborne(1996), Banaji와 Prentice(1994) 등이 제기한 동기론적 관점이다. 동기론적 관점에서는 자기고양을 쾌락 추구 동기가 작용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고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자기고양이 시간과 공간, 맥락의 변화 여부에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즉 가변성이 높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자기고양이 명백하게 성격적 측면을 가지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자기고양이 성격적 측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낙관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일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박현숙과 손정태(2001)에 따르면,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적극적인 행동, 긍정적인 정서,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여 목표한 바를 성취하는 경향이 있고, 비관성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철회하고 수동성에 빠지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낙관성이 높을수록 자기고양 편파 경향 역시 높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자기고양 편파와 낙관성의 관계를 좀 더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해 낙관성의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Scheier와 Carver(1985)는 낙관성을 ‘자기 삶의 중요한 차원에서 좋은 결과와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를 가지는 기질적 경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최근 들어서 이 기질적 관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Chang, 1998; Marshall, Wortman, Kusulas, Hervig & Vickers, 1992; Scheier & Carver, 1985; Scheier, Carver, & Bridges, 1994; Schwarzer, 1994 등), 낙관성이 행동 차원에서는 자기조절(self-regulation)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상황 특정적이기보다는 시간, 공간, 그리고 맥락의 변화에 상관없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반적이며 총체적인 기대라는 점에서 성격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낙관성과 자기고양 편파 모두 자신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낙관성은 기대(expectation) 요인을 중시하는 반면, 자기고양 편파는 자신의 현 상태와 미래에 대한 평가 요인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이 전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성격적 특성을 상당히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기고양 편파와 사회적 관계

북한이탈주민들은 ‘아주 특별한 이주 형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채정민, 2003). 이들은 자기들이 태어나 오랫동안 살아왔던 북한을 떠나는 순간부터 사회적 관계망의 급속한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좌절과 차별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들이 남

한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의 질에 따라 이들의 자기고양 경향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자기고양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좌절과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고양은 저하될 것이다.

양돈규(2001)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부모, 형제자매 및 가까운 친척, 친구, 이웃, 교사 및 동료들과 같은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혹은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받게 되는 긍정적 자원을 말한다. Kahn과 Antonucci(1980)는 사회적 지지가 감정(affect), 긍정(affirmation), 원조(aid)의 3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고, 이영자(1996)는 이와 대동소이하게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라는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정서적 지지란 관심, 배려, 애정, 존경 및 감정이입과 같은 것을 말하며, 평가적 지지란 개인 및 개인 행동에 대한 평가를 통한 지지를 말하고, 정보적 지지란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능을 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의 형성 및 학업 성취에 도움을 주는 자기 보호 기능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정현숙, 1998; Felner, Ginter & Primavera, 1982). 이러한 기능을 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기고양과 높은 정적인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한 사회에서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이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전우택 등(1997)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사회 연계 체제의 빈약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측정 방식에 따라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부모, 친구, 동료 등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측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 측의 자기 보고를 통한 방식이다. 이 중에서 좀 더 타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후자이다(양돈규,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사회적 관계와 이에 대한 개인의 지각 수준에서 볼 때,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독립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사회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측면의 영향과 이와 상반된 지각된 차별감 같은 부정적 측면의 영향이 서로 독립적 관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각된 차별감이 자기고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지각된 차별감은 한 사회 내에서만 살아가는 경우에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북한이탈주민들과 같은 문화적 이주민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지각된 차별감이라는 개념을 다루기 전에 차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아야 한다. 김혜숙(1999)에 의하면, 차별은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태도를 일컫는 편견의 행동적 측면’이다. 이 정의는 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동안 차별에 대한 연구가 집단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념 정의를 별로 하지 않았다.

집단적 차원에서 차별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집단에 소속한 개인의 차별 문제를 연구한 것은 20세기 후반부에 미국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때 어떠한 상황에서 차별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맥락이 강조되었다(Fiske, 2000).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개인적 차원의 차

별에 대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잠재적 이유로는 개인적 차원의 차별감이 집단적 차원의 차별감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는 점을 연구자들이 강하게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집단에 소속되거나 분류됨으로써 당하는 차별이 아닌 순수한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도 차별은 당할 수 있다. 이 점은 개인의 비정상성(abnormality)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차별이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집단적 차원에서 차별을 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개인적 차원에서 차별을 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동안의 연구들(예, 김광역, 1999; 전우택 등, 1997; 정유선, 1998)이나 개별적인 북한이탈주민들의 호소도 거의 대부분이 집단적 차원의 차별을 암묵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광역(1999)에 따르면, 남한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자신들과 동등하게 보지 않고, 동질적으로 보지도 않으며, 동정심과 호기심, 그리고 의심과 불신의 뒤섞인 감정으로 대한다. 이는 정유선(1998)이 실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드러났다. 즉, ‘남한 사람들은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풍습과 가치관과 기술에서 우리와 약간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열등한 별종의 인간으로 취급하려는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에 덧붙여, 북한이탈주민의 성공과 실패는 개인이 아니라 ‘북한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집단 정체성(group identity)으로서 판단되며, 이러한 남한 주민들의 태도와 행동에 의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모멸감과 배신감, 좌절을 맛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태는 다른 이민자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Werkuyten & Nekuee, 1998)는 점에서 이주 상황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실

제의 차별과 지각된 차별감(perceived discrimination)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차별받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도 역시 앞서 언급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와 유사하게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차별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각된 차별감과 자기고양 편파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차별받았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이 차별받을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자신에 대한 타인의 판단을 여과없이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차별받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더 차별받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관점(Taylor 등, 1994)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개인적으로 차별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차별에 대한 부당함을 경험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이들은 자신들에 대해 특별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이를 부정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점은 조영아(2003)의 연구에서도 드러났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아방어기제 중에서 ‘부인(denial)’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지각된 차별감을 지닐수록 최소한 이를 전적으로 수용해서 자기 비난을 하기보다는 부인하는 방식으로라도 자기를 방어하는 소극적 자기고양 편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고양 편파와 문화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자기고양 편파의 보편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자기고양 편파가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제기하는 견해이다. 이 문제는 싱가포르나 일본, 한국 등의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심리적 측면에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심도 있게 활발한 경험적 연구로 이어졌다. Harrington과 Liu(2002)에 따르면, 자기고양 편파는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성되는데,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자기고양 경향이 더 높게 동기화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Epstein, 1992; 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 현대 미국인의 개인주의에 대한 민족지적(ethnographic) 관찰 결과, 미국인의 자기관(self-view)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고유하고 특별한(unique and special)” 사람으로 느끼게끔 하는 측면이 더욱 정교하게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현대 아시아인들에 대한 민족지적 관찰 결과, 아시아인들이 행동을 할 때 전원일치(consensus)에 적합하게 하고, 내집단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자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Fiske, Kitayama, Markus, Nisbett, 1998). 싱가포르인과 이스라엘인을 비교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자기고양을 연구한 Kurman(2002)도 싱가포르인들의 경우 겸양 경향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상관성이 정적으로 유의미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동양 문화에서는 자기고양이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나아가 북한이탈주민 모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와는 다른 동양 문화권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자기고양 편파의 문제를 문화와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의 자기고양 편파와 관련된 직접적이고 명료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우리와 유사한 문화적 속성을 지닌 일본 문화와 일본인의 자기고양 편파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일본 문화와 일본인의 특징에 대한 규정이 다양하지만, 자기고양 편파와 관련된 측면만을 정리해서 일본 문화는 내집단 중시, 조화 추구(이상 Fiske, Kitayama, Markus, Nisbett, 1998), 실패 중시와 상대적으로 성공 비중시(Miyake & Yamazaki, 1995)의 특징이 있고, 일본인의 특징으로는 상호연관적 자기관(Markus & Kitayama, 1991)을 들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집단을 위해 자기고양 편파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문화에서의 자기고양 편파의 특징과 관련해서 볼 때, 남한과 북한 문화와 주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유사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상당히 있다. 유사한 점으로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같은 동양 문화권이라는 점에서 일본과 우리 문화와 민족들에게도 자기고양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일호, 윤덕환, 서동호, 한성열(1997)이 Heine와 Lehman(1995)가 캐나다 대학생들과 일본 대학생들을 비교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을 비교했던 연구를 토대로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제 연구(replicate research)를 실시하여 간접적으로 비교했는데, 여기서 한국 대학생들은 비현실적 낙관성이 일본 대학생들보다는 높고 캐나다 대학생들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것은 곧 한국 대학생 혹은 한국인들의 자기고양이 일본 대학생 혹은 일본인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이 보이는 ‘우쭐 심리’(최상진, 2000)가 목격자에게는 ‘우쭐’로서, 행위자에게는 ‘자랑’으로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혼자 있을 때 경험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현상을 어느 정도는 자기고양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문화와 북한 주민들의 의식 구조도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차이점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강조되다보니, 자주적인 의식,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길러져야 한다는 점(김형찬, 1990)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차원에서만큼이라도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고양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북한의 문화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정착해나가는 과정에서 남한 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이것은 이주민들이 보이는 심리적 문화적응(psychological acculturation)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Heine, Lehman, Markus, Kitayama(1999)의 연구에서 아시아인들이 북미로 이주해서 문화적응하는 과정에서 주류 사회의 특징에 걸맞게 자기고양 편파를 획득해 나가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과정을 유사하게 경험할 수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또 하나 남한 문화에서 가지게 되거나 북한에서 가졌으면 유지될 수 있는 특성으로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이란, 해당 사회와 구성원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향과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많이 지닌 사람들은 자기들의 심리적 적응, 우정, 경험의 개방성과 같은 긍정적인 자질들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한성열, 2003). 또한, Paulhus(1990)에 따르면, 높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가진 사람들은 주장훈련에 참가한 이후 자기들을 실제 이상으로 주장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처럼 새로운

사회에 이주하여 해당 문화에서 기존 주류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적응하려고 할 경우 자기고양 편파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규(1995)가 주장한 북한이탈주민의 태도 전환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북한 사람들은 심리적인 갈등 상황에서 급격하게 태도를 전환하는 식의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는 상황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태도 변화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강조되는 북한 문화에서 조장되는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문화에서 특정한 명령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남한 주민들 대다수의 행태에 순응할 가능성이 크다. 즉, 남한 문화에서 자기고양이 어떻게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느냐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도 이러한 방식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와 심리적 적응

자기고양 편파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자기고양 편파 경향이 높을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보는 견해와 경험적 지지 결과가 많았다. Harrington과 Liu(2002)에 따르면, 자기고양이 인지적 기능상에서 건강한 면을 보이는 긍정적 환상이라는 견해가 있다(Taylor & Brown, 1988; Taylor & Gollwitzer, 1995; Lewinsohn, Mischel, Chaplin & Barton, 1980). Taylor와 Brown(1988)은 “자기에 관한 정보를 비교적 편파적이지 않고 균형잡힌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을 가진 사

람은 잘 적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주관적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도 했다. 이러한 점들을 정리한 Heine, Lehman, Markus, Kitayama (1999)와 Robins와 John(1997)에 따르면, 자기고양 편파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 지배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자기고양 편파는 유럽계 미국인들에게서 두루 발견되고, 자기고양과 정서적 고통은 강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우울감(예, Alloy & Abramson, 1979)과 사회적 불안(예, Miller & Porter, 1988; Shean & Uchenwa, 1990)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또한, Taylor와 Brown은 자기고양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현실을 지각하는 사람들을 부적응자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Heine와 Lehman(1995)이 주장한 대로 개인의 안녕감은 ‘자기다움(selfhood)에 대한 문화적 기준’에 부합할 때 더 잘 경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자기고양 편파를 많이 지닐수록 개인의 안녕감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Kitayama, Markus, Matsumoto, Norasakkunkit(1997)의 연구에서 미국인들에게서는 자기고양 편파와 자기 존중감이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는데, 일본인들에게서는 뚜렷한 관련이 드러나지 않았다.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자기고양 편파가 자기 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좋은 기분(good mood) 등과 관련이 없음이 드러났다. Kitayama, Markus, Kurokawa(1994)도 미국인들에게는 안녕감이 자긍심과 성취와 관련이 있었는데, 일본인들에게는 안녕감이 대인간 조화의 수용과 유지와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다는 점도 이러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일본인들의 경우에 상호연관적 자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관점(Markus & Kitayama, 1991)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기고양 편파는 자기의 바람직한

모습을 구성하는데 부정적 기능을 한다는 보고도 있다. Kitayama, Markus, Matsumoto, Norasakkunkit (1997)는 암묵적으로 자기고양이 자기 개선(improvement) 과정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소극적인 의미의 심리적 적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현실 인식이 좀 더 정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기고양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Colvin 등, 1994, 1995, 1996).

자기고양이 편파의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자기비판(self-criticism)의 경우에도 이러한 가능성이 엿보인다. Duval과 Wicklund(1972)는 부정적 정서 반응은 자기 변화를 위한 동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점은 Okano (1994)의 언급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는 일본 문화와 일본인은 수치에 민감하고 자기 비판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가치로 여기고, 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촉진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한성열(2003)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자기고양이 편파를 많이 할수록 우울감과는 부적 상관을, 생활만족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남한 사회에서 자기고양이와 심리적 적응의 정적 상관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들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고양이 편파 측정 방안과 연구 과제

자기고양이 편파 측정 방안

자기고양이 편파 개념은 측정 상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이다. 첫째, 자기 지각과 타인 평가의 정확성 문제이다. 즉, 개인의 주관적인 자기 지각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타인의 평가에 근거해 자기고양이 편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타인 의식의 문제이다. 자기고양이이란 자신을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말하므로 남들에게 이러한 점이 공개될 때의 심리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Kurman(2002)은 자기고양이의 측정은 해당 문화에서 자기 드러내기(self presentation)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규범이 작용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자기고양이 수준을 보고한 이후에 연구자나 제 3자로부터 이에 대한 객관적 비판이 수반되는 피드백(feedback)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Uchida(2003)는 Greenwald와 Farnham(2000)이 제시한 암묵적 태도검사를 사용하여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명시적 태도에서는 나타날 수 있지만 암묵적 태도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인들의 겸양 편향이나 낮은 자존심이 일본 문화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검사 도구의 특징을 감안하여 인상관리 차원에서 반응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 경향성을 대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지 않거나, 기존의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기고양이에 대한 반응은 상향 혹은 하향으로 더 많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사실(fact)의 작용 가능성 문제도 있다. 즉, Kunda(1990), Pyszczynski와 Greenberg(1987)가 주장한 대로 사람들은 합리적인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부 사실과 동떨어져 있을 경우 자기고양이 편파를 촉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외부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타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이

사실을 잠시 잊거나 무의식에 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은 자기보호적 경향이 높기 때문에 심리학적 연구 과제에 대해 왜곡해서 반응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많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조영아(2003)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인(denial)’이라는 방어기제가 가진 자기보호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영아(2003)가 적시한 바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 한다’라는 식의 논리를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적게 할 가능성이 높다(p. 81)”는 인식에서 이들의 자기고양 경향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판단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은 연구 대상자로서 극단적 반응 행태를 취하거나 중간적 반응 행태를 취할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연구 과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 주민들에 비해 어느 수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이러한 집단 차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적응 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미 해당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남한 주민들의 비교를 위해 비교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통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Greenfield(1999)가 제기한 바대로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에서는 변인을 대체로 지표(index)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이 지표적 성격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어야 하고, 통계적 검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표집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통상적으로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대부분이 각 문화의 대학생 집단을 비교하는 관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이탈주민 중 대학생 집단과 남한 주민 중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자기고양 편파와 관련된 기본적인 비교 분석을 하기로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이 분석의 결과를 준용하여 북한이탈주민 조사 대상자 전체에 대한 자기고양 편파의 양태와 관련 변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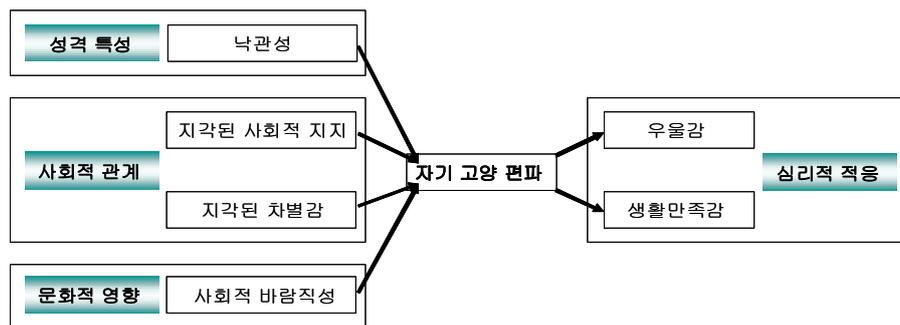


그림 2.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에 대한 상세 연구 모형

간의 관계성을 그림 2와 같이 파악해 보려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고양 편파 선행 요인(예언 변인)들이 자기고양 편파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 다음으로는 자기고양 편파가 우울감과 생활만족감이라는 심리적 적응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과제로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과 남한 주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은 그 수가 많지도 않고 별도로 표집하기가 매우 어려워져 변형된 스노우볼(snowball) 방식을 적용하여 표집하였다. 이들은 총 130명이었는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9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21명(남자 55명, 여자 66명)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34세 9개월(SD=12세 10개월)이었고, 연령 범위는 18세에서 70세까지이며, 평균 정착 경과 기간은 약 2년 9개월(SD=1년 10개월)이었고, 평균 북한이탈 경과 기간은 약 4년 9개월(SD=2년 2개월)이었다.

이 중에서 남한 대학생들과 비교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을 선별하였는데, 최종적으로 35명(남자 14명, 여자 21명)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24세 7개월(SD=5세 1개월)이었고, 정착 경과 기간은 평균 약 2년 8개월(SD=1년 8개월)이었다.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과의 비교 준거를 설정하기 위해 남한 주민 대학생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서울 시내 대학교 1개 학교에서 심

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 117명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자 7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는 110명을 최종 분석 대상(남자 75명, 여자 35명)으로 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24세 5개월(SD=1세 9개월)이었다.

측정 도구

자기고양 편파

한성열(2003)이 제작한 10문항의 자기고양 편파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또래의 누구보다 잘 할 자신이 있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한성열(2003)은 4점 척도로 구성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타 척도가 중간치를 허용하는 5점 척도 형태를 모두 띠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1점)’에서 ‘완전히 그렇게 생각한다(5점)’의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낙관성

Scheier와 Carver(1985)가 제작한 ‘생활지향검사(Life Orientation Tes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낙관성에 대한 4개 문항과 비관성에 대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도록 구성된 5점 Likert 식 척도이다.

지각된 차별감(perceived discrimination)

이 척도는 Leibkind와 Jasinskaja-Lahti(2000)가 개발한 척도로서, 차별감과 인종주의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구직 신청하기, 직장 분위기, 경력 상의 승진, 해고, 주택 임대나 구입,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 인종 폭력, 식당 등에서 입장 거부, 신용거래나 대출 상의 문제, 근로

자 관련 당국의 처우, 사회 보험제도, 건강 체계, 관공서의 사회 서비스 센터와 경찰의 서비스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인종관련 문제를 겪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상생활에서 ‘북한이탈주민이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해당되는 9개 문항만으로 수정하여 구성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

Marlowe-Crowne(1960)가 제작한 Social Desirability Scale(MCSD)는 33문항을 10개 문항의 단축형으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4)’ 사이로 평가하게 한 것이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Kahn과 Antonucci(1980)이 감정(affect), 긍정(affirmation), 원조(aid)의 3 요소로 규정하고, 전지아(1990)가 이 척도를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초기에는 3점 척도이었는데, 유성은(1997)이 다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수정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생활 만족감

Diener, Emons, Larsen 및 Griffin(1985)이 5문항의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구성했는데 이는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는 방식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감

일반인들의 우울 성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표 1. 척도별 점수와 신뢰도 계수

		북한이탈주민 (n=121)	남한 대학생 (n=110)
자기고양	신뢰도 계수	.90	.85
	평균(표준편차)	3.24(.79)	3.40(.61)
낙관성	신뢰도 계수	.82	
	평균(표준편차)	3.17(.36)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신뢰도 계수	.87	
	평균(표준편차)	3.20(.71)	
지각된 차별감	신뢰도 계수	.91	
	평균(표준편차)	2.47(.54)	
사회적 바람직성	신뢰도 계수	.85	.75
	평균(표준편차)	3.35(.53)	3.04(.40)
우울감	신뢰도 계수	.85	
	평균(표준편차)	2.08(.42)	
생활만족감	신뢰도 계수	.76	
	평균(표준편차)	2.41(.71)	

Radolf(1977)가 제작한 ‘CES-D Scale’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주일에 이러한 우울감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를 ‘1일 이하(1점)’에서 ‘5~7일(4점)’의 4점 척도로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척도는 내적 일치도인 Crobach's α 가 .75 이상이어서 비교적 신뢰로운 수준에 있다.

결 과

남북한 출신자의 자기고양 편파와 사회적 바람직성 비교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자기고양 수준은 남한 대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지는 않았다. 하지만, 양측 대학생을 성별로 구분하여 변량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하였는데, Duncan의 사후 검증 결과 북한이탈주민 남자 대학생만이 4.04로 유의미하게 매우 높은 자기고양 점수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문화적 측면과 관련해서 파악하고자 했던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과

남한 대학생의 비교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은 남한 대학생들보다 사회적 바람직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양측 집단을 성별까지 세분화하여 변량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에서 북한이탈주민 남자 대학생의 사회적 바람직성이 유의미하게 제일 높았다.

이상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 대학생과 남한 대학생을 비교해 보았는데, 자기고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나머지 연령대에서도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단, 북한이탈주민 남자 대학생들의 반응 경향으로 보아서 다른 연령대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보일 수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향성은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와 관련된 제 변인별 수준과 관계성

북한이탈주민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관련 변인을 모두 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4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10대는 사례수가 4명이어서

표 2. 북한이탈주민 대학생과 남한 대학생의 자기고양 편파 수준 비교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n=35)	남한 대학생 (n=110)	t	F
전체	3.55(.79)	3.40(.61)	-1.222	
성별	남자(n=89)	4.04(.77) ^a	3.40(.61) ^b	5.190**
	여자(n=56)	3.23(.63) ^b	3.39(.62) ^b	
t 값	3.433**	.145		

* $p < .05$, ** $p < .01$, *** $p < .001$

F값은 북한이탈주민 대학생과 남한 대학생을 성별로 구분하여 ANOVA한 결과임.

a, b는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임.

표 3. 북한이탈주민 대학생과 남한 대학생의 사회적 바람직성 수준 비교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n=35)	남한 대학생 (n=110)	t	F
전체	3.32(.55)	3.04(.40)	3.322***	
성별	남자(n=89)	3.63(.67) ^a	3.02(.41) ^b	8.241***
	여자(n=56)	3.11(.34) ^b	3.08(.37) ^b	
t 값	2.989**	-.716		

* $p < .05$, ** $p < .01$, *** $p < .001$

F값은 북한이탈주민 대학생과 남한 대학생을 성별로 구분하여 4개 집단에 대해 ANOVA한 결과임.

a, b는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임.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대 집단과 병합하여 20대 이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고양 편파, 지각된 차별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기고양 편파는 20대가 제일 높았고, 지각된 차별감은 40대가 제일 높았으며 20이하가 낮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성별로 구분하여 관련 변인들에 대해 평균 차이 검증을 한 결과가 표 5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낙관성을 제외한 모

든 변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자기고양 편파, 지각된 사회적 지지, 사회적 바람직성은 남자 북한이탈주민들이 여자보다 높았고, 지각된 차별감, 우울감, 생활만족감은 여자 북한이탈주민들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자들은 자기고양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높고,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이 낮은 등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당히 자존심을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여자들은 이와

표 4. 관련 변인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차이 검증

	20대이하 (n=59)	30대 (n=24)	40대 (n=12)	50대이상 (n=26)	F
자기고양 편파	3.47(.86) ^a	2.95(.49) ^b	2.85(.48) ^b	3.18(.84) ^{ab}	3.899*
낙관성	3.25(.37)	3.14(.35)	3.09(.38)	3.06(.31)	2.068
지각된 사회적 지지	3.31(.77)	3.12(.53)	2.78(.22)	3.22(.78)	2.019
지각된 차별감	2.27(.48) ^c	2.66(.52) ^b	2.96(.48) ^a	2.53(.52) ^{bc}	8.236***
사회적 바람직성	3.40(.60)	3.31(.42)	3.19(.27)	3.33(.53)	.623
우울감	2.02(.44)	2.17(.42)	2.34(.13)	2.03(.43)	2.599
생활만족감	2.25(.65)	2.56(.86)	2.70(.26)	2.48(.75)	2.229

* $p < .05$, ** $p < .01$, *** $p < .001$

a, b 는 Duncan 사후 검증 결과임.

표 5. 관련 변인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차이 검증

	남자 (n=55)	여자 (n=66)	t
자기고양 편파	3.63(.90)	2.92(.52)	5.407***
낙관성	3.21(.34)	3.15(.38)	.925
지각된 사회적 지지	3.50(.87)	2.95(.38)	4.499***
지각된 차별감	2.29(.55)	2.63(.48)	-3.624***
사회적 바람직성	3.53(.61)	3.20(.38)	3.673***
우울감	1.94(.51)	2.20(.29)	-3.522***
생활만족감	2.17(.74)	2.60(.62)	-3.418***

* $p < .05$, ** $p < .01$, *** $p < .001$

a, b 는 Duncan 사후 검증 결과임.

반대의 양태를 보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전체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와 관련된 변인들과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6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고양 편파

는 낙관성, 지각된 사회적 지지, 사회적 바람직성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지각된 차별감, 우울감, 생활만족감과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서 예상한 바와 거의 같다. 즉, 자기고양 편파는 낙관성과 같은 성격적 측면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

표 6. 북한이탈주민의 관련 변인 간 상관

	1	2	3	4	5
1. 자기고양 편파		.42***	.77***	-.43***	.54***
2. 낙관성	.45*** .44***		.26**	-.10	.29**
3. 지각된 사회적 지지	.79*** .56***	.28*		-.48***	.62***
4. 지각된 차별감	-.64*** .13	-.25	-.70***		-.56***
5. 사회적 바람직성	.66*** .06	.22	.71***	-.73***	
		.38***	.10	-.20	

* $p < .05$, ** $p < .01$, *** $p < .001$

우측 상단은 전체 상관치이고, 좌측 하단은 성별에 따라 구분된 것인데 굵은 글씨의 상단 수치는 남자의 결과이고 보통 글씨의 하단 수치는 여자의 결과임.

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차별감과 같은 사회적 관계와도 유의미한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문화적 영향과도 유의미한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런데, 성별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자 북한이탈주민은 자기고양 편파와 지각된 차별감과 사회적 바람직성과는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여자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자기고양 편파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계와 더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자기고양 편파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표 7과 같이 실시했다. 전체 대상자와 남자에 대한 분석에서는 종속변인은 자기고양 편파로 하고, 독립변인은 낙관성, 지각된 사회적지지, 지각된 차별감, 사회적 바람직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고, 여자에 대한 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을 낙관성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자기고양 편파에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낙관성이었다. 전체 설명량은 56.9%이었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50.0%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도 유사했는데, 약간의 차이가 나는 점은, 남자의 경우에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설명량(51.4%)이 다소 높았고, 여자의 경우에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설명량(22.3%)이 매우 낮아지고 대신 낙관성의 설명량(13.0%)이 다소 높아졌다. 전체 대상자와 남자에 대한 분석에서 지각된 차별감과 사회적 바람직성은 유의미한 설명량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표 8과 같이 실시했다. 전체 대상자, 남자, 여자 모두에 대한 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은 자기고양으로 하고, 종속변인은 우울감과 생활만족감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분석하였다.

전체 대상자에 대한 분석에서는 자기고양이

표 7.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R^2	t
전체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고양	.707	.500	12.521***
	낙관성		.263	.069	4.654***
남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고양	.717	.514	8.754***
	낙관성		.266	.071	3.248***
여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고양	.472	.223	4.719***
	낙관성		.361	.130	3.615***

* $p < .05$, ** $p < .01$, *** $p < .001$

표 8.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자기고양 편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R^2	t
전체	자기고양	우울감	-.625	.391	-8.737***
		생활만족감	-.319	.102	-3.673***
남자	자기고양	우울감	-.708	.516	-7.292***
		생활만족감	-.515	.265	-4.374***
여자	자기고양	우울감	-.231	.053	-1.898
		생활만족감	.282	.080	2.349*

* $p < .05$, ** $p < .01$, *** $p < .001$

우울감과 생활만족도에 각각 39.1%, 10.2%의 설명량을 보였다. 그런데, 자기고양이 우울감과 생활만족감 모두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다소 다른 결과이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자기고양 편파가 많을수록 심리적으로 더 적응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에 대한 자기고양 편파의 관계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방향인데, 생활만족도에는 그렇지 않은 결과 즉, 자기고양 편파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자들의 경우에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여자들의 경우에는 우울감과 관련하여 다소 유의미성이 낮기는 하지만, 기존의 연구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 수준과 우울감,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표 8에서 남자들의 연구 결과가 기존 연구 결과와 다소 불일치되는 것이 발견되어 이들에 대한 분석을 좀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 표 9와 같이 성별과 연령별로 구분하여 이들 변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굵게 표시된 것은 기존 연구 결

과와 불일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남자 집단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집단에게서도 일부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자들의 경우에는 자기고양 편파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40대가, 자기고양 편파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는 20대, 40대, 50대 이상이, 우울감과 생활만족감 간의 관계에서는 20대, 40대, 50대 이상이 예상 밖의 결과를 보였다. 이 중에서 40대의 결과는 사례수 부족 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2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유의미한 상관치를 보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남자 집단이 우울감과 자기고양 편파 간의 상관치가 크게 문제가 안되는 반면, 생활만족감과 자기고양 편파 간의 상관치와 생활만족감과 우울감의 상관치가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자 집단에서는 생활만족감과 관련해서 이들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9. 북한이탈주민의 성별과 연령별 자기고양 편파와 우울감, 생활만족감 간의 상관

		자기고양 편파	우울감	생활만족감
자기고양 편파	20대-(25/ 34)		-.06	.21
	30대 (7/ 17)		-.65**	.56*
	40대 (4/ 8)		-.30	.25
	50대+(19/ 7)		-.23	-.06
우울감	20대-(25/ 34)	-.67***		.17
	30대 (7/ 17)	-.58		-.44
	40대 (4/ 8)	.76		-.28
	50대+(19/ 7)	-.73***		.06
생활만족감	20대-(25/ 34)	-.49*	.86***	
	30대 (7/ 17)	.62	-.80*	
	40대 (4/ 8)	-.26	.00	
	50대+(19/ 7)	-.53***	.39	

* $p < .05$, ** $p < .01$, *** $p < .001$

괄호 안의 앞쪽은 남자 사례수이고, 뒤쪽은 여자 사례수이며, 좌하단은 남자의 결과이고, 우상단은 여자의 결과임.

논 의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서 성격적 측면, 사회적 관계, 문화적 영향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자기고양 편파가 심리적 적응 수준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은 낙관성과 같은 성격적 측면과 자기고양 편파가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r=.42, p<.001$)을 보였는데, 이는 자기고양 편파가 성격적 측면도 다분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았던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만을 중심으로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는 남한 정착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을 보인다.

두 번째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차별감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도 자기고양이 높은 상관($r=.77, p<.001, r=-.43, p<.001$)을 보였다. 이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생활 주변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에 의해서도 자기고양 편파가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경우에 자기고양 편파가 발생하는 것은 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한 결과인데, 지각된 차별감을 적게 받는 경우에 자기고양 편파가 많은 것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경우를 적용하면 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의 문화에 의해 영향받는가의 문제인데,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자기고양 편파가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r=.54, p<.001$)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문화에서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이 높은 상태에서 남한 문화가 자기고양 편파를 조장하는 문화라고 인식하고 자신도 이에 따라 자기고양 편파를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는 성격적 측면, 사회적 관계, 문화적 영향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어느 요인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실시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낙관성이 50.0%와 6.9%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이들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 문화의 영향보다는 남한의 생활 주변인들과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지각(social perception)과 낙관성과 같은 성격적인 측면에 의해서 더 많이 영향받는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에 지각된 차별감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과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문화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 문화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고양 편파가 문화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것이다. 왜 이러한 결과를 낳았는가는 이주민의 특징을 지닌 북한이탈주민들의 문화적응(acculturation) 현상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상 타 문화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심리적 문화적응(psychological acculturation)을, 집단적 차원에서는 문화적응(acculturation; 이 경우에는 문화 변용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보임)을 보인다. 따라서 이 문화

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정착 생활을 했는가하는 단순 정착 경과 기간과 실제로 이 문화권에서 얼마나 문화적응하려고 하는가와 같은 심리적 문화적응 지향성 내지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정민(2003)에 의하면, 단순 정착 경과 기간은 심리적 문화적응 지향성은 유의미한 상관관을 보이지 않았고, 지각된 문화이질감과 성격적 측면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문화적응 지향성 내지 전략과 자기고양 편파의 관계를 구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에 지각된 차별감과 같은 부정적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문화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설명력을 보인 점에 대해 이들 변인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낙관성과 높은 상관관을 보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바람직성이 자기고양 편파와 상당히 높은 상관($r=.54, p<.001$)을 보였는데, 이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나 낙관성과 각각 높은 상관($r=.62, p<.001, r=.29, p<.01$)을 보였던 것이다. 지각된 차별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성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의해 자기고양 편파가 영향을 받는데, 여자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은 적고 낙관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남자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여자보다 더 높았고, 낙관성은 남자와 여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자기고양 편파와 관련하여 남자는 남한 사회에서 사회적 지각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와 낙관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이 낙관성과 같은 성격적인 측면에 의해서 자기고양 편파가 더 많이 영향받을 것을 시사한다.

남자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렇듯 사회적 지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들이 남한에서 적응하기가 더 쉽지 않다는 정진경(2002)의 연구 결과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남자 북한이탈주민들이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이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가급적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남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적응하는데 있어서 주변 남한 주민들과 상호작용할 때 매우 민감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여자 북한이탈주민들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부 주변인의 작용에 대해 적게 영향받고, 낙관성과 같은 성격적 측면에 의해 안정적으로 자기고양 편파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자기고양 편파를 많이 할수록 우울감은 낮고, 생활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보였는데, 생활만족감에 대한 설명력(10.2%)보다 우울감에 대한 설명력(39.1%)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앞서의 예측과는 다소 다른 것이다. 여기서 다른 점은 자기고양 편파를 많이 할수록 생활만족감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남자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 자기고양 편파가 우울감에 대한 설명력은 51.6%이고, 생활만족감에 대한 설명력은 26.5%이었다. 그리고 자기고양 편파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방향으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자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남자들과는 달리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고양 편파가 생

활만족감에 대해서는 8.0%, 우울감에는 5.3% (n.s., $p < .062$)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우울감에 대한 설명력의 유의미성이 약간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

자기고양 편파가 생활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전체와 남자 북한이탈주민들의 결과가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른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 부문에서 잠시 언급했었는데, 이 집단의 고유한 속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집단의 불성실한 반응 내지 왜곡된 반응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즉, 남자 집단의 사례수가 여자 집단보다 그 비율(45.5% 대 55.4%)이 더 낮고, 자기고양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와 같은 다른 측면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남자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유한 속성을 다각도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잠재적 요인으로는 이들이 자신의 괴로운 점을 많이 가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더 삶에 만족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태도일 것으로 보인다. 이 상태는 다른 아닌 자신들이 충분히 대접받을만한 능력이 있는데, 이를 사용할 여건도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남한의 삶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삶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정진경(2002)이 주장한 바대로 남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적응하는데 더 어렵고, 복잡미묘한 과정을 거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다소의 외의 결과를 보인 남자 집단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적응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격적 측면이 잘 변화되지는 않지만 이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 즉, 낙관성을 더 가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제공하는 방향과 이들이 이 사회적 지지를 더 지각할 수 있도록 민감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으로는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의 정도를 남한 주민들과 정교하게 비교문화심리학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좀 더 확고한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 설계와 측정도구의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의 변화 가능성인데, 이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종단적 연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의 영향력 등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사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광익 (1999). 문화소통과 문화 통합: 통일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이정복, 신옥희, 이승훈, 임현진, 김광익, 이장호, 박삼욱, 조홍식, 강현두 공저. 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145-174.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정규 (1995).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이해.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자료집, 3-40.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형찬 (1990).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서울: 한백사.

김혜숙 (2000).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 2000년도 춘계 심포지움, 19-45.

박현숙, 손정태 (2001). 만성요통환자가 지각하는 낙관성과 우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0(2), 125-136.

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1). <http://www.dongposarang.or.kr> (2003년 3월 1일 현재).

양돈규 (1997).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돈규 (2001). 지각된 사회적지지, 낙관성 및 해슬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8(1), 1-23.

윤인진 (1999). 소수자 연구 시각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 경남대 북한대학원 학술회의 발표논문.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7).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에 있어 서한, 미, 일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초록, 531-545.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우영, 이금순, 서재진, 전현준, 최춘흠 (2000).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협동연구 총서, 2000-06.

이장호 (1996). 남한이주자(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 접근. 탈북자 지원을 위한 대책과 과제. 크리스찬 아카데미 남북관계대화모임 발표논문.

전우영, 조은경 (2000).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기대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67-184.

전우택, 민성길, 이만홍, 이은설 (1997). 북한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

- 정신의학, 36(1), 145-161.
- 전지아 (1990). 산후 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망이 산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선 (1998). 귀순자의 남한 사회 적응 과정과 일상에서의 실천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 (2002).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탈북자 자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163-177.
-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정현숙 (1998).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 12-31.
- 조영아 (2003). 남한 내 북한 이탈 주민의 자아방어 기제 연구: 남한 주민 및 재한 조선족과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통일부 (2002). <http://unikorea.go.kr>
- 한성열 (2003). 자기고양 편파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심사 중).
- Alloy, L. B., & Abramson, L. Y. (1979). Judgment of contingency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students: Sadder but wiser?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8, 441-485.
- Banaji, M. R., & Prentice, D. A. (1994). The self in social contex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5, 297-332.
- Colvin, C. R., & Block, J. (1994). Do positive illusions foster mental health? An examination of the Taylor and Brown 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6, 3-20.
- Colvin, C. R., Block, J., & Funder, D. C. (1995). Overly positive self-evaluation and personality: Negativ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52-1162.
- Colvin, C. R., Block, J., & Funder, D. C. (1996). Psychometric truths in the absence of psychological meaning: A reply Zuckerman and Kne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252-125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 measure of globa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uval, S., & Wicklund, R. A. (1972). *A theory of objective self-awareness*. New York: Academic Press.
- Fiske, A. P.,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Gilbert, S. Fiske, & G. Lin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p. 915-981). Boston: McGraw-Hill.
- Fiske, S. T. (2000).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t the seam between the centuries : evolution, culture, mind, and brai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299-322.
- Greenfield, P. (1999). Three Approaches th the Psychology of Culture : Where do they come from ? Where can they go ? *The 3rd conference of AASP*.
- Harrington, L. & Liu, J. H. (2002). Self-enhancement and attitudes toward high achievers: A bicultural view of the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 *Journal of Cross-Cultural*

- Psychology*, 33(1), 37-55.
- Heine, S. J., & Lehman, D. R.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4), 766-794.
- Kitayama, S., Markus, H. R., & Kurokawa, M. (1994). *Cultural views of self and emotional experience: Does the nature of good feelings depend on culture?* Unpublished manuscript, Kyoto University, Kyoto, Japan.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1267.
- Kitayama, S., Takagi, H., & Matsumoto, H. (1995). Seiko to shippai no kiin: Nihonteki jiko no bunka-shinrigaku (Causal attribution of success and failure: Cultural psychology of Japanese selves). *Japanese Psychological Review*, 38, 247-280.
- Kunda, Z.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 480-498.
- Kurman, J. (2002). Measured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and the Sensitivity of the Self-Enhancement Measure to the Modesty Response. *Cross-Cultural Research*, 36(1), 73-95.
- Landrine, H. (1992). Clinical implications of cultural differences, the referential versus the indexical self.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 401-415.
- Leibkind, K. & Jasinskaja-Lahti, I. (2000). The influence of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on psychological stress: A comparison of seven immigrants group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0, 1-16.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iller, D. T., & Porter, C. A. (1988). Errors and biases in the attribution process. In L. Abramson (Ed.), *Social cognition and clinical psychology*. New York: Guilford.
- Miyake, K., & Yamazaki, K. (1995). Self-conscious emotions, child rearing, and child psychopathology in Japanese culture. In J. P. Tangney & K. W. Fisc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pp. 488-504). New York: Guilford.
- Okano, K. I. (1994). Shame and social phobia: A transcultural viewpoint.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8, 323-338.
- Osborne, R. E. (1996). *Self: An eclectic approach*. Boston: Allyn & Bacon.
- Pyszczynski, T., & Greenberg, J. (1987). Toward an integration of cognitive and motivational perspectives on social inference: A biased hypothesis testing model.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0, pp. 297-34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Radloff, (1977).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bins, R. W., & John, O. P. (1997). The quest for

- self-insight: Theory and research on accuracy and bias in self perception. In R. Hogan, J. Johnson, & S. Briggs (Eds.),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pp. 649-67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hean, G., & Uchenwa, U. (1990). Interpersonal style and anxiety. *Journal of Psychology, 124*, 403-408.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Werkuyten, M. & Nekuee, S. (1999). Subjective well-being, discrimination & cultural conflict: Iranians living in the Netherland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7*, 281-306.
- 1 차원고접수일 : 2003. 9. 4.
최종원고접수일 : 2003. 10. 28.

Influ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self-enhancement bias to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in South Korea

Jung-Min Chae

Seong-Yeul Ha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personality, social relation perception, and cultural influence on North Korean Defectors' self-enhancement bias, and how their self-enhancement bias influences on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in South Korea. To implement this, we compared the self-enhancement bias of South Korean undergraduates and North Korean Defector undergraduates, and social desirability, too.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result.

Based on this outcome, we focused on 121 North Korean Defectors' self-enhancement bias mechanism. We found that personality and social relation perception factors influenced significantly on their self-enhancement bias and furthermore their self-enhancement bias affected on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In addition to this, we identified sex difference at this mechanism. That is, women showed the same pattern with the existing findings in the study of self-enhancement bias mechanism, but men showed somewhat different pattern.

key words : self-enhancement bias, psychological adaptation, North Korean Defector, reunification, Culture